

월간 주요 이슈

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(2021. 2. 3.)

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, 절반이 환경 관련 인증마크 사용

– 법정인증마크 가장 많이 사용되나 31.7%는 인증번호 확인 어려워 –

- 오픈마켓 5개(11번가, G마켓, 옥션, 인터파크, 쿠팡)의 4개 품목[식·음료품(식품 25개, 음료 23개), 유아용품(42개), 생활용품(50개), 개인 위생용품(40개)]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의 광고를 조사
- 친환경 제품 광고 시 50.6%가 환경 관련 인증마크 사용

– 법정인증마크*, 업계자율마크**, 해외인증마크 중 한 가지 이상의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사용해 광고한 제품은 총 91개(50.6%)

*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하는 환경마크

** 업계 자체적으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성능, 품질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붙이는 마크

- 법정인증마크 가장 많이 사용되나 인증번호 확인 어려운 경우가 31.7%
-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(31.7%)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그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.
- (품목별 종합) 식·음료품은 법정인증마크만 사용되었고, 유아용품은 해외인증, 법정인증, 업계자율마크, 생활용품은 법정인증, 해외인증, 업계자율마크, 위생용품은 해외인증, 법정인증, 업계자율마크 순

[제품 광고상 사용된 환경 관련 인증마크]

